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8년도 제19차 회의

1. 일 자 2008년 9월 25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재)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4. 결석위원 강 명 현 위 원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김 병 화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송 창 현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이 광 준 금융안정분석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정 희 전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이 상 배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민 성 기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6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8년 9월)(안)>

(1) 2008년 9월 11일 제18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 제36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8년 9월)(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됨에 따라 주관위원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금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음

첫째, 대상기간(2008년 1~8월)중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이에 대응한 통화신용정책 운용실적을 중점 기술하였음. 둘째, 금융·경제동향(제1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유가 상승 등 해외경제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였음. 셋째, 통화신용정책 운영(제2장)에서는 기준금리 결정 배경,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 하에서의 정책수단 운용실적 등을 기술하였음. 넷째,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및 방향(제3장)은 7월의 조사국 전망치를 근거로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주요 수정·보완사항을 보면,

첫째, “개요” 부분에서 금년 1~8월의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중 해외요인으로 국제유가 급등 이외에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추가하는 한편 8월 금통위 회의시 중기물가안정목표에 대한 고려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우려가 있었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표현을 수정하였음

둘째,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고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을 기술함에 있어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표현을 다소 완화하였음

셋째, “본문” 부분에서 “개요”의 수정내용을 반영함과 아울러 환율 동향 기술시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고 동 조치내용을 주석으로 추가하였음. 또한 물가동향 부분에서 8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소폭 낮아졌음을 반영하고 국제유가 전망 부분에서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를 유가하락 요인으로 추가하였음

(2)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8년 9월)(심의위원회안)(생략)

<의안 제38호 — 2008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38호 - 「2008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최근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세, 시중유동성 및 지역금융동향 등에 비추어 4/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3/4분기와 동일한 6.5조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다른 위원들이 모두 이에 동의하였음

(3) 심의 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2008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6.5조원으로 정한다.